

본당 소식

2025년 3월 교황님 기도지향 :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들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서 서로 각자의 은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미사 및 친교 나눔 이후 뒷정리를 철저히 합니다.

♣ 부활 판공성사 안내

- 판공성사 기간: 4월 13일(주일)까지.
- 주일 미사 시작 15분 전에 고해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 3월 7일(금)~4월 11일(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오라토리오

♣ 모임/회의

- 사목회의: 오늘(03월 9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이민찬 비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309,10€ • 교무금 200,00€

전례 성가

입당: 115 (수난 기약 다다르니)

봉헌: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성체: 198 (성체 안에 계신 주님), 170 (자애로운 예수)

파견: 119 (주님은 우리 위해)

전례 봉사

이번 주일(3월 9일)	다음 주일(3월 16일)
1독서: 이민찬 비오	1독서: 서민복 리노
2독서: 윤지영 베레나	2독서: 류정연 릿타
복 사: 안태리 소화데레사, 김사빈 엠마	복 사: 강윤아 헬레나, 변가인 헬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3월 9일 (자) 사순 제1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 행여 네 발이 돌부리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너는 독사와 살모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이무기를 짓밟으리라. ◎
-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

제1독서 (신명기 26,4-10)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 4 “사제가 너희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 5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 6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7 그래서 저희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8 주님께서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9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10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0,8-13)

형제 여러분, 성경에서 8 의로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9 그대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11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하고 말합니다.

12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13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루카 4,1-13)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2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3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6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7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8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9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1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11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12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13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세상의 유혹에 맞서는 교회를 지켜 주시어, 주님의 진리에 의지하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 구원을 위한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살피 주시고, 모든 이가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연대로써 실천하며 세상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3. 질병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자이신 주님,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피 주시어,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덜어 주시고, 더 나아가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이신 주님, 위기에 놓인 가정 공동체를 살피 주시어, 갈등으로 상처입은 구성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 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